



##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 한국교회의 선교정책

최근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개최된 제16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IFMM)에서는 인구감소 현상과 이민청 신설을 고려하여 이민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신상록 교수(상명대)는 기조강연에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민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4차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고급인력의 수요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아젠다가 되었다. 이에 이민정책은 국익을 위해 이민의 양과 질을 조정하고, 국경관리·체류관리·사회편입 및 통합·이민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중요한 국가 책략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이민이 빈번해지고 이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민정책도 변천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의 문턱이 낮아지고 왕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수교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교류를 맺고 있

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상호적인 교류는 장점이 되지만, 이민의 탈국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도 나타나는데,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모스크를 지으려는 이슬람 측과 반대하는 개신교 측의 갈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등은 2005년 5월과 10월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사회통합 과제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국가 시대의 이민 현상은 이민을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차림 수용국 사회에서 사회통합 요구와 함께 '이민의 사회화', '이민의 경제화', '이민의 정치화' 현상도 나타난다. 이는 이민정책의 영역이 전 사회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록 교수는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로 한국 이주민선교 역사가 30주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민선교 역

사를 자랑거리로 여기기 이전에 30년이 되도록 이주민선교 정책 방향을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신학교에 이주민선교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있고, 교회도 이주민선교를 위한 정책 목표조차 설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선교환경의 변화, 즉 인구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주민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주근로자의 한국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정한나 전도사(GPM선교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K-CULTURE로 물들이면서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견고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이주민이 현재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단일 민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급격하게 밀려오는 이주근로자와 난민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열방의 백성이라고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말하지만, 정착 이주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음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을 이방의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우리 곁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새로운 흐름임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디아스포라신문은 국제이주자선교포럼에서 다루진 한국 이민정책 관련 발제를 비롯하여 '이주민이 말하는 한국의 이민정책' 등을 모아 8월호에 담아보았다.

**국제이주자선교포럼** 2·3·5·6·8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은평교회의 다문화 사역** 4면

**체류외국인 현황 및  
현행 이민정책 배경** 12면

# 다문화 시대가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소리

상명대학교 이민통합전공 교수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상임이사



글

신상록 목사

이주의 사회화란 이주국 사회에 적응해 가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주민은 이주국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이 낯설고 사회적응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점차 이주국의 규범과 문화,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주민이 사회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주국 사회에 잘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주의 사회화 과정은 {고립단계} → {수용단계} → {동화단계}로 발전한다. 이주 초기에는 이주국의 낯선 언어와 문화차이로 외로움과 고립감이 크지만, 점차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 사춘기인 문화접변 혹은 변동 현상을 겪게 되는데, 적응하지 못하여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잘 적응하여 편입동화의 과정으로 통합된다.

그러나 이주국이 아닌 고향 나라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중도에 이주한 이들은 이주국에서의 반복된 '재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들은 단기 이주자를 제외한 난민 신청자나 영주자격자, 귀화자, 장기 노동자, 중도에 이주한 청소년들과 국민의 배우자 등이 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이주에 부모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기에 사회적 고립감이 심하고 저항과

포기를 반복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본국으로의 역이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난민의 경우 그 고통은 더 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영역과 사회영역에서 이주 초기에 있는 이주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주자의 사회화를 돕는 국내 관련 법률이나 제도, 지자체의 조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난민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동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한 법률, 지자체의 이민자 지원 조례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수용국의 정책이며, 이주민을 위한 법률과 제도다. 법률과 제도에 근거하여 정책이 결정되면 직접적인 전달체계인 학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동포지원센터 등과 민간 차원의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시행된다.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봉사나 선교를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참여하고 있다.

국가 간의 분쟁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도 난민행렬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매년 만 명에서 만 오천여 명의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 인도적 체류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2023년 현재까지 누적 난민신청은 8만 건에 이르렀으며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난민 문제의 핵심은 난민 자격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고, 난민 인정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가 인정하는 난민을 국내 대학에 유학시

키는 '보편적 경로 유학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난민유학생 유치는 초국가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난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화를 위해서 많은 대학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교회 연합회는 이들의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난민 정착을 도울 수 있다.

교회는 나그네를 돌보고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인 문화 회복의 사명을 받았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진보적 교회는 이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정의에 힘쓰는 반면, 보수적 교회는 영혼구원과 교회성장에 집중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지 못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노선 모두 선교가 목적이었으며, 교회성장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에 참여하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보수 성향 교회는 이주민을 돕는 목적이 예수를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반면, 진보 성향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같지만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거와 작업장 환경 개선, 감성노동 상담 등에 집중한다.

필자는 이주민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어떤 목회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회통합 프로

그램을 통한 이주민선교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이민청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의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의 증가는 정부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졌음을 뜻한다. 정부와 교회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요 15:15). 한국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며, 이주의 시대 정신은 곧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초국가 시대에 부응하는 선교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다문화 시대가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만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되는 통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국가의 사회통합 정책은 여론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믿음'의 통합 정책은 완전하고 영구적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사회통합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한국정부의 이민정책을 모두 다룬 것이 아니며, 완전하지도 않다. 다만 필자가 경험하고 이해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국가 이민정책과 한국교회의 선교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 A CONSULTATION ON DIAS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ponsored by: GDN GLOBAL DIASPORA NETWORK, TORCH TRINITY, KOREAN DIASPORA NETWORK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Await Registration Details  
Visit [www.global-diaspora.com](http://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 이주근로자의 한국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2023년 한국은 이주민의 대거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라 불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기저에는 한국경제를 이끄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실시한 외국 노동력의 지속적 유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유입된 이주근로자들은 현재 한국 산업의 동력으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 동반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근로자들의 수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출생률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그들의 출생률로 보건대, 이주근로자들이 한국의 급격한 고령사회의 진행을 일부 저지해 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만나본 이주근로자 중 한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주근로자들은 대부분 10년 비자 만료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 금년부터는 비자 전환 시 전체적으로 점수산정의 기준이 중복 적용되어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라면 예전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E7(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취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대다수의 이주근로자들은 가족 동반 거주 비자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고, E7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9(비전문 취업) 비자로 처음 입국한 이주근로자들이나 10여 년의 근로 이후 E7 비자를 취득한 근로자들이나 모두 최저 시급의 적용을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다. 근로자 혼자서 생활할 경우 최저임금이라 할지라도 본국

에서의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다. 또한 주말을 가리지 않는 잦은 연장근무도 적어도 혼자 생활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가족을 동반하여 생활할 경우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먼저,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하기에 생활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동반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또는 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위한 보습 교육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가족들과 주말이나 공휴일을 함께 보내며 드는 비용도,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 의료비의 지출도 모두 큰 부담이 된다. 심지어는 가족들로 인해 잔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짐작해 보았을 때, 이주근로자 유입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던 우리의 태도는 어쩌면 우리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경제인의 관점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주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때 모든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족을 데려온다. E7 비자를 발급받는 시점에 그들의 자녀는 대체로 학령기 아동이다. 그러나 이주자 가정이 앞서 언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외에도, 자녀들이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낯선 한국의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어울리면서 문화충격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국에서 온 외국 이주근로자의 자녀들은 한국 어린이들의 놀림

감이 되기도 한다. 결국 가장 큰 상처는 이주근로자의 자녀들이 받게 되고, 그들이 받는 상처는 고스란히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이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본국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돌아가거나, 또는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버티는 것이다. 후자에 의할 때 그 상처는 반사회적인 문제로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주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할 때, 이들의 한국 정착을 위하여 우리 정부와 국민은 어떠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최소한 먼저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이주 가정이 우리의 이웃으로 올 것이다. 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만이 문제가 아니라 샤머니즘이 혼재하여 한국의 불교와는 또 다른 동남불교가 유입되고, 그렇게 우리 교회 옆에 불교 사원이 자리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이 들끓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인' 사역이 아니라 교회 주변의 이방 나그네를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역교회와의 연합사역을 필자가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교회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근로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살핀다면, 차후 그의 가족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는

그들의 정착을 돕고, 그로써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주근로자를 통해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산업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려면, 우리도 이주근로자를 향해 가지는 우월의식과 이기적인 마음, 그들을 하대하는 우리의 저급한 태도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주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노동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힘써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문화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화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에게 우리보다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생과 노동인구 감소라는 막대한 문제의 굴레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대전제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지구촌은 국경이라는 울타리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자유로이 넘나드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이주근로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동등한 기회와 합당한 노동력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이 지켜지려면, 그들을 향한 차별적 대우와 더 엄격한 잣대로 취업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모두 비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주민은 더욱더 존귀하게 환대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글 정한나 전도사(GPM선교회 간사)



##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은평교회의 다문화 사역

7월 16일 주일, 은평교회에서는 자체 국제사역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사역전 사회 및 지역외국인 초청예배를 가졌다. 전사회는 현재 은평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10여 개국의 외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전시하고 인도 차티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저녁에는 초청받은 지역외국인을 비롯한 1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찬양예배에는 강릉에서 열린 2023년 강릉세계합창대회 금메달 팀인 인도 나가랜드 합창단이 함께하여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렸다.

인도대사관에서 나온 문화담당 영사 아난야 아가왈은 이번 모임이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밝혔으며, 은평교회 선임장로 오을석 장로는 지난 8년간 이어온 은평교회 국제사역과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 외국인 지도하는 교수 및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자리에 참석하였으며 코리아타임스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다. 예배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인도 나가랜드 전통음식을 다 함께 나누었다.

이처럼 은평성결교회는 매주 영어예배 및 다문화예배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선교와 다문화 선교를 헌신적으로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영어예배부는 게이트웨이인터내셔널(Gateway International) NGO 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귀한 선교사역을 이어 오고 있다. 영어예배의 구성원들 중 목사이거나 전도사인 신학교 유학생들은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수업을 주 5회 진행한다. 한국예수전도단 본부와의 공동사역을 통해서도 전국의 예수전도

단 간사들에게 온라인 영어과외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예수전도단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은평구 지역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English for Good Work'라는 세미나를 열어 지역 청년을 섬기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JEME'라는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섬김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파주 DMZ에 있는 작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영어사역자로 사역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의 객체이자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서, 선교를 함께 해 나가는 주체이자 동역자로 보는 모델을 제시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은평교회 영어예배부는 NGO 활동을 통해 국제개발 선교, 사회복지 선교, 교육 선교를 더욱 확장해 나갈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을 통로로 하여서 그들 고국의 지역사회를 발전해 나가는 국제개발 선교를 특히 시도 중이다. 인도 마니푸르 지역과 케냐 나록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인들이 세운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박사급 유학생들을 동원하여 이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것을 놓고 파우아교육협력재단(PAUA) 교수지원단과 의논 중이며, 올해 안에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통로도 마련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20여 명의 영어예배 구성원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제주 내 장애인들과 지역 노인정, 다문화가정을 섬길 계획이다.



은평교회 국제사역의 또 다른 부서인 다문화부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10여 개 국적의 가정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어예배부가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다문화부는 무엇보다 예배를 사역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모든 다문화 성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하며 준비한다.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글로벌비전 찬양팀'에는 특별히 다문화 성도들도 속해 있다. 매달 예배가 마치면 생일축하, 나라별 모임, 신앙 간증(감사 나눔), 달별 특별행사 등이 진행된다. 다문화부에서 진행하는 특별 사역은 ①주중 다문화 성도들 일터를 방문하는 '다문화 선교팀' 사역 ②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기별 장학금과 기도지원 및 다문화부 '어린이 미술놀이방' 사역 ③다문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실 사역이 있다. 매 주일 열리는 '어린이 미술놀이방'에서는 다양한 만들기와 간단한 미술활동을 하며, 정기적으로 교회 내 비전센터(교육관) 1층 로비에서 작품전시회를 연다.

은평교회 다문화부의 비전은 한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다음세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가정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학기 초 모든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며, 영어 등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별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방과 후 교실'은 꼭 필요한 사역이기에 현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베 다문화가정 모임, 중국인 다문화가정 모임 등 국제적으로 사역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늘도 은평교회 국제사역위원회는 예배와 선교를 중심으로 이미 다가온 미래인 디아스포라 시대, 다문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 나가고 있다. 글 **오현택/장혜선** 목사 (은평교회 영어예배부/다문화부)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복환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 상처가 별이 되다(Scar into Star)

## '국내 출생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 뒷이야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몽골인 '마랄'입니다. 국적상으로는 몽골인이지만, 스무 살이 될 동안 한 번도 몽골에 가본 적 없는 개인사는 제 존재의 모순적인 부분이자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2년 2월에 '국내 출생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을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권한을 승인받았습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여러 절차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서류작업이며 법의 시행일 뿐이지만, 저 개인에게는 상처의 시간이자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얻게 된 '체류자격 부여'라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회를 통해 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자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마냥 어둡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저에게 친숙하고 따뜻한 곳이었으며, 한국에서 형성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한몽골학교는 제가 12년 동안 몸담았던 학교이자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낸 고마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을 주셨는데, YDMN(Youth Diaspor Mongolian Network) 몽골 선배들과 대학로에서 뮤지컬을 공연하며 주인공을 해본 경험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하지만 신분이 없는 상태로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기엔 한계가 있었습니

다. 2021~2022년도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기 전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꼬리표 정도로 느껴졌지만,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마치 발목을 잡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적에 관해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괴로웠고, 비자 없이는 대학교에 갈 수 없는 현실에 낙담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설고 두려운 땅, 마음에서는 멀지만 내 핏줄의 고향인 몽골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머물지를 두고 부모님과 하루하루 실랑이를 벌이며 지냈습니다.

몽골에서의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막막하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남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 대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나는 왜 불법체류자로 태어났나요, 하나님!" 매일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내 저는 그토록 사랑하던 한국에 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속감을 느끼며 자라온 나라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왜 나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인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 끊임없이 던지며 밤마다 잠 못 이루기를 반복했습니다.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시간은 저를 기다려 주지 않고, 대학교 입시 준비 기간은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대학교 원서 접수까지 8개월을 앞둔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

닐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에, 어머니께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국내 출생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구제대책'이 생겼고 곧 시행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나의 애통함과 눈물,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걸까? 역시 나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차오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줄기의 빛처럼 저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제 영혼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니던 학교를 떠나고 한국 학교를 1년간 다녀야 했습니다. 12년 동안 다니며 정들고 감사했던 재한몽골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슬프고 가슴 아팠지만, 불법에서 합법으로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이민정책 덕분에 현재 저는 또래 친구들과 발맞추어 2023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1학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과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구제대책 이전까지는 불법에서 합법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이 워낙 다사다난한 장기전이였기에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영혼에 상처를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서 현재는 제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무의미하게 살아갈 뻔한 저에게 기적처럼 절묘한 시기에 시행된 정책은 정말이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동기와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옹운 길로 인도하는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상처(Scar)가 마음속에서 별(Star)이 되었듯이, 같은 처지로 낙망한 친구와 후배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국적,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어두운 그늘 안에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망각하고 외면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재 발굴에 힘쓰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구감소시대에 즈음하여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에서 자란 지한파 외국인들에게 한국 이민정책이 날개를 달아준다면,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로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을 대신하여 저의 글로써 여러분께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그 마음속의 깊은 감정들을 나눌 수 있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이 미래를 함께 꿈꾸며 노래해 가면 좋겠습니다.

글 마랄(몽골 국적 '국내출생 장기체류아동 구제대책' 대상자)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ti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 초국가 시대의 유학생을 위한 이민정책



고신대학교 총장, 선교학

글

이병수 교수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열심, 곧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믿는다. 필자 역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보다 앞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하나님은 수많은 이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고 계시며, 이들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그렇기에 이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국제이주자선교포럼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한국의 유학생 관련 정책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본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①한국으로의 유학을 촉진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② 유학 온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③ 유학 후 어떻게 국내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2013년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유학의 배경에 관해 "△다양한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38%)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33%)

| 구분                    | 특징  | 선교 움직임  |
|-----------------------|---|---|
| 제1시기<br>(1965년~1979년) | - 경제개발계획과 아울러 정부초청 유학생 유입(대만 중심)<br>- 1970년 이전에 70명 유입(일본 10명, 중국 9명, 미국 5명 등)                                    |   |
| 제2시기<br>(1980년~2003년) | - 국가와 유학생 수 폭증, 34개 국가<br>- 86아시아 게임, 88올림픽, 92년 한중수교 등<br>국격 상승과 선호도 증가  | - 1995년 카이스트 중심의 SEM 시작<br>- 1997년 ISF 시작   |
| 제3시기<br>(2004년~2010년) | -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br>- 2004년 'Study Korea Project'(2010년까지 5만 명 유치)<br>- 중국 유학생 급증(2008년 전체 유학생의 79.1%) | - 중국 유학생 사역 시작(대구 동신교회를 비롯해 서울의 대형교회의 사역)<br>- 2007년 몽골 DMN 사역                                    |
| 제4시기<br>(2011년~2019년) | - 정책전환기(2012~14년 유학생 잠정적 감소)<br>- 이후 지속 증가(2019년 18만 명)   | - 2015년 VCYF 베트남 사역<br>- 캠프스국제교회연합회(CICA)<br>- CCC 유학생사역(BI)<br>- 2019년 JDM(예수제자운동)<br>- 귀국유학생 사역 |
| 제5시기<br>(2020년~현재)    | - 코로나19로 해외선교 위기, 국경폐쇄<br>-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기<br>-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br>- 생계형 유학생 증가                                     | - 해외선교단체의 국내 전환<br>- 미국남침례교단(IBM) 국내 선교사 파송<br>- 전환사역으로 국내 유학생 선교로 전환<br>- 도시선교 관점에서 유학생 접근       |

〈표. 한국 유학생 정책과 사역 시기 구분〉 출처: 지문선(2023) 요약정리

ISF(국제학생회) 본부장 지문선 목사는 한국의 유학생 도입과정을 5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장학계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 요약정리로 대신한다.

△전공분야 때문에(24%)"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달리, 2012년 실시된 연구에서 베트남과 미얀마 등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은 매우 다른 답변을 내놓았는데, "저렴한 학비와 학위취득을 통한 자본획득"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학생의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을 오랫동안 추적해 온 McMahon은 이를 Push model(배출)과 Pull model(흡입)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배출은 학생의 흐름이 △경제적 부의 수준 △본국의 세계경제 개입 정도 △본국 정부의 교육 우선순위 △가

정에서의 교육 기회 가용성 등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반면 유학지의 흡입요인은 △본국과 유학지 간 경제관계 △원조 및 문화를 통한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비례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흡입/배출 요인과 함께 저항요인도 작용하게 되는데, 가장 큰 저항요인으로 유학비용이 있을 것이다. 유학생이 스스로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유학비용에 대한 저항요인이 작용하고 이를 정부, 부모, 또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에 적절한 선으로 수용한 이들이 한국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국제적 이론에 더하여 한국인으로서 하나의 저항요인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것은 언어의 장벽이다. 한국어는 영어와 같은 세계 공용어가 아닌 특수어로서, 귀국 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이다. 한국이 유학지로써의 매력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유학생들 본국과의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더욱 넓혀야 할 것이며, 저항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학과 정부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대학마다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

하나님의 기쁨과 자량이 되는 교회

#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용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향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운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경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전
- 협동장로 / 임찬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문탁 박광운 옥치안 이홍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욱,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재,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쌍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는 등 저항요인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대학의 경제성과 연관하여 얼마만큼 유지할지는 더욱 세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나, 선교의 관점에서 이를 교회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을 때 유학생 선교의 접촉점이 열릴 것이라 본다.

일반적으로 우수인재란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 되며, 향후 어느 나라든지 우수인재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국가경쟁력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온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우수인재·필수인력·인구대책이 되게끔 하는 정책방향을 정부는 이미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을 투입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이 발제에서 모든 것을 세분화하거나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흐름과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과 분야에 적합한 인재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석·박사급의 우수인재 교육과 정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국에서 요구 수준을 채워오기도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한국 입국 후 대학에서 제공하는 국제어학당 등에서 어학연수(D-4-1) 비자로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친 후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방위로 접근하여 초기에 환대와 섬김, 정착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Thomas Frey)는 "2030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4년 동안 발이 묶여 공부하는 지금의 대학 모델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학의 소멸론은 수도권

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를 휩쓰는 화두가 되었다. 특히 인문계열은 평생학습으로 전환한 지 오래 되었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지방대학의 위기이다. 20년 뒤 지방대학 60%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연이어 지역경제도 흔들리게 된다.

대학은 인구소멸, 지방소멸, 지방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몇 가지의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부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제도가 있다. 현재 전국에 9개의 대학이 선정되어 부리산업에 대한 숙련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졸업 후 외국인근로자(E-9)로 지역의 부리산업에 취업할 수 있다. 대학은 이러한 분야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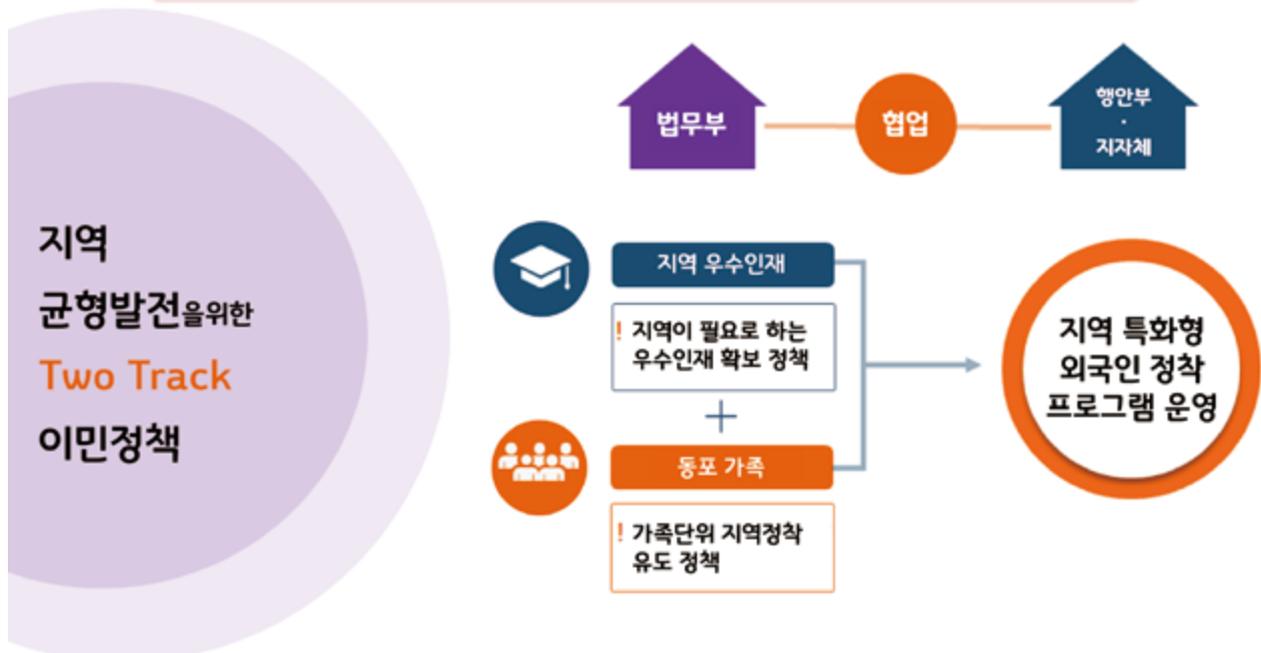
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을 통합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별 특화산업·대학·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석·박사급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대학은 한국 기업과 사회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해 내야 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연구원에 연구인력으로 외국인 또는 고급인재 유학생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박사과정을 마친 유학생의 60%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40% 정도만 국내 취업으로 연결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통계는 자국 귀환이 20% 정도이며, 제3국으로의 이탈이 40%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질을 향

상하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영어 트랙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좋은 교수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양성된 고급인재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좋은 유학생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졸업 후 좋은 일 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유학 후 취업률이 유학 유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취업률은 너무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대 담론, 또는 장기 목표 수립에서부터 세부 실행까지 체계화 작업을 해야 하며, 유학생 선교는 이 틀을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유학생 정책의 목표를 다시 논의 및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세부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의 지역정착 체류특례 부여  
(지자체) 지역별 필요인재 규모 파악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2.07.15.)

## 한국 이민청 설립에 대한 의견

저는 네팔에서 온 티말시나 라주 (TIMALSINA RAJU)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유학 올 때 저의 꿈은 IT 컴퓨터공학 교수였습니다. 한국이 IT 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강국이다 보니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고, 저 역시 그 기술과 학문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기술 분야를 네팔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이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석사를 공부하던 중 2015년 6월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이듬해 대학원을 졸업하여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직장은 좋은 환경이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물론 업무에 관해서는 잘 알려주셨지만, 외국인으로서 성과를 낼 때까지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회사에 다니면서 처음 한국에 유학 온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IT를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팔 대학교에서 대학교수가 되어 네팔 청년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더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호서대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박사과정 동안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그 사이 첫 딸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박사 졸업 후 교수로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저는 새로이 취직한 직장의 부설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센서 임베디드 시스템, 데이터 센싱 개발 관련 일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일이 저의 주요 업무였는데, 거의 혼자 일해야 했고 업무 외에도 영업 관련 일을 병행해

야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소통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이민청에 바라는 이민 법 개정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외국인에게 E7(외국인 전문인력), F2(거주), F5(영주권) 같은 비자 종류와 시스템을 확대 및 완화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박사까지 졸업하고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 증명을 위해 좀 더 건실한 직장으로 옮겨서 일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서류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류에 대해 계속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청이 고급 인적자원을 이민 제도를 통해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이미 한국으로 유학 와 졸업 후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으면 매년 비자 연장 없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한국인들처럼 다자녀 혜택을 받아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혜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외국인으로서 비자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여서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집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체류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늘 월세로 살아야 하고, 전기세·보험료·관리비 등을 내는 과정도 복잡

합니다. 또한 비자 갱신을 위해 시간과 재정,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어 체류와 업무에 지장을 줍니다. 어떤 외국인은 오직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자주 외국에 다녀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렵도 없습니다. 더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급하게 귀국하기도 합니다. 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의료 부분에서도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직장을 얻는 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및 혜택 제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수 목적으로 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취업비자가 필수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류 준비와 각종 접수까지 전부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정작 비자를 위해 인터뷰할 때 담당자가 한두 마디만으로 외국인을 파악하고 비자를 결정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인터뷰하는 외국인들의 실력과 상황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봉사자를 연결해 주어서 비자 발급(갱신)과 취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실습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수가 되어 네팔 청년들을 가르치길 원하는 저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IT 분야에서 일하는 선배들과 동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론으로만 배웠던 컴퓨터 관련 일을 실무적으



로 돕고 지도해 줄 멘토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 졸업생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통해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네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네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사업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해주어 네팔이 친한 국가가 되도록 힘쓰고 싶습니다. 현재 네팔에는 K-POP과 드라마, 음식, 아이템 등 한류가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네팔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 한국을 더 사랑하고 유학까지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팔 학생들이 여러 한국 기업, 학교,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특별히 네팔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껏 받은 사랑과 도움을 이분들에게 봉사로 갚고 싶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을 이해해 주고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과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을 느리게 하거나 한국어를 잘 못하면 욕먹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온 서양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을 당할까?' 가끔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한국 사람은 서양 선진국에서 온 사람은 올려다보면서 저 같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들은 피하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따돌리

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에 와서 등록금 내며 공부하는 유학생의 90%는 아시아 학생이고, 한국 회사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아시아 사람인데 우리는 왜 좋은 일을 하고 무시당하며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하는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사람들이 개도국 출신 외국인을 대할 때 인격과 생활까지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제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과 가족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

랍니다. 사실 한국에 공부하고 일하러 오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왔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점차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민정책을 잘 추진하여서 세계가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글 티말시나 라주(네팔 이주민)

## 다문화사회 현장에 대한 유감 (2)

디아스포라신문은 정기적으로 한국이주 민선교연합회(KIMA)의 연구보고서 <국내 이주민선교 기반 구축을 위한 대상별 선교전략 개발> 본문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보고는 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이주민 선교의 선교신학적 당위성과 선교전략 기반구축의 필요성' 내용을 이전 호에 이어서 수정요약한 글이다.

콜린 니콜라스 박사는 '유럽의 영적 붕괴'라는 강의에서 유럽교회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자유의 축복이 권위와 전통으로 변질된 것 ②기독교식 이름만 가지고 모양만 갖춘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명목주의 ③영적인 필요를 잃어버린 물질주의 ④무신론의 영향 ⑤포스트모더니즘 영향으로 자기가 곧 법이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려는 현상 등이다. 또한, '유럽 복음주의 교회는 과연 그 당시에 무엇을 잘못하였는가'에 대하여 "유럽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러한 추세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자기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 밖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영적인 고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의 외형을 키우는 것에만 집착하였고, 그

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생명력 있게 살아있어야 한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에 기독교인은 단 2% 정도였다고 하며, 교회가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을 때도 그 비율은 5%에 달하지 않을 때였다. 그렇다면 한국에 기독교인이 20%가 넘는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

사회나 국제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주자' 영역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해 간다는 것은 분명 올바른 방향이자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민 이슈는 아주 의미 있고, 연구 또한 거시적으로 볼 때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주자 선교(Migrant missions)를 목회적으로 해석하고, 특수선교가 아닌 세계선교 가운데 재해석하는 관점도 진일보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제는 국내 외국인을 이주노동자로 국한하여 선교하는 전략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진입하였다. 2003

년을 기점으로 국제결혼도 급격하게 늘고, 유학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인간실존에 대한 병폐적인 수용은 곧 사회의 병폐적인 요소로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출애굽 기사는 가혹한 현실의 이주노동자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해방을 선포하고 다시는 그 "나그네"의 현실이 병폐적으로 인식,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본토인이 아닌 이주된 모든 자를 칭하는 구약의 "게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한 속에 있음을 지적하며, 제한된 법적 근거나 정당하지 못한 인간 대우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위임을 출애굽 전반에 걸쳐 반복, 인식시킨다. 하나님은 "나그네", 곧 이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을 항상 애굽의 압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상태와 연관하시며, 이를 동질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에서 발전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신약의 새계명은 동질성의 구체적 형태가 곧 '사랑'이며,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규범 중 유일한 '사랑'의 규범으로써 새롭게 완성된 율법임을 선포한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 고난의 깊은 사랑으

로써 평화 실현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의 심판대에 서는 시간대와 현재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시간 개념이 같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의 실천적 선교의 응답은 현실사회 안에서 무엇이었느냐?"고 물으시듯, 신약의 새계명은 하나님과 인간현실 사이의 시공간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랑이다.

이제 한국교회와 사회는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발전해 온 이주노동자에서 시작하여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들이 있는, 그 얼굴을 외면할 수도 없는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중에는 미등록 외국인 등 법적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비쳤던 존재들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향해서 부당한 대우, 비인간적인 처신, 비도덕적 가혹행위 등의 상식 이하의 선을 정당하게 넘어서는 한국의 도덕성과 사회심리로 보건대, 인간에 대한 가치척도의 실험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신학과 교회의 기능 및 역할은 어디까지이며, 도대체 얼마만큼이어야 하는가?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 FMB(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의 국내 이주민선교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FMB(Foreign Mission Board)는 1988년 창립 이래 현재 63개 국가에 75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FMB 국내지부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21세기 변화된 세계선교 현장의 필요에 발맞추어,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위해 2012년에 창립되었다. 또한 해외선교회의 정책과 전략을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지원한다는 목표와 △국내 외국인 선교사역 △초교과 연합 및 협력사업 △선교사 후원 사역 △해외 선교지와 의 네트워크 전도 △제자훈련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반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창기 국내지부는 해외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들이 각자 소명에 따른 사역을 진행해왔다. 2018년부터는 '국내 외국인 선교지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국내 타문화 선교사역에 집중하였다.

현재 FMB 국내외국인선교지부는 선교사 20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사역은 △외국인 교회개척 △센터사역 △외국인 전도사역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외국인 교회개척은 선교사와 한국에 체류하는 타문화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현지인 중심 교회로,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제자훈련이 주 사역이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인을 위한 영어예배 사역과는 구별된다. 센터사역은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 체험,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등 타문화-타종교 선교대상자들과 개방적이고 중립적으로 연결되는 사역이다. 외국인 전도사역은 외국인 밀집지역·이태원·대학가 등

외국인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방전도 사역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제자양육도 병행하고 있다.

FMB 국내외국인선교지부의 특징은 타문화권 선교사역 중 70%가 교회개척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FMB 해외선교회 사역 특징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외 선교지와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교회개척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교회개척은 중앙아시아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50% 이상이고, 25%가 다민족, 나머지 25%는 기타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

교회 구성원 대상은 크게 다민족 국제인과 특정 국가 민족 문화권 교회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국가 민족 문화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국제 커뮤니티에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국제인'을 위한 교회와 한국에서도 본국처럼 자신들의 국가 민족 문화권으로 사회관계망을 제한하는 '국가인'을 위한 교회를 의미한다. 다민족 국제인은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연구원·전문직·출장자 등이 포함되고, 특정 국가 민족 문화권 대상에는 다문화 국제결혼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선교사들의 해외 선교지 경험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일한 민족이나 문화권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현재 FMB 국내외국인선교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문화 선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일본 문화권, 중·남부권에서는 다민족·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권을 대상으로 교회개척과 더불어 센



터사역과 외국인 전도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사역 언어로는 다민족 국제인은 국제 영어가 주를 이루고 특정 민족 문화권은 민족 언어를 사용한다. 중앙아시아권은 주로 러시아어를 통한 사역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한 경우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민족 문화를 초월한 사역도 시도되고 있다.

한편 FMB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도전은 경제 구조이다.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사역하면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원이 줄어들고 점차 후원이 끊어진다. 한국에서 타문화 선교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경제적 자립구조 구축이 필수 불가결하다. 두 번째 도전은 사역 대상의 유동성이다. 한국은 북미, 유럽과 같은 이민 국가 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타문화 선교는 장기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이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타문화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역 대상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동하고 떠나는 통과자들이다. 사역의 대상이 일시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타문화 선교는 좀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전략으로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는 모습은 마치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연상시킨다. 배는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배와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 작업자들이 배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서 배와 항구를 연결하는 줄을 걸고, 적정거리를 유지해서 배와 항구를 일렬로 맞추기 위해 꽤 긴 시간 동안 부지런히 협력한다. 세계 곳곳으로 출항했던 배들이 오랜 여정을 마치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한국 항구에 들어오고 있다. 선교사들은 복잡미묘한 심정으로 한국이라는 변화된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있다.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지 못하면 다시 출항할 수 없다. 한국에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한국이라는 항구에 다시 잘 정박하여 새로운 선교 여정을 준비하고 새로운 제2, 제3의 항해를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글 김명학 선교사  
(FMB 국내지부 지부장)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교단별 이주민선교 관련 배경과 현황을 게재한다. 9월호는 가장 교단이 실린다.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냇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 모세, 이주민 지도자로 준비되다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글

Dr. Tereso Casiño

모세는 지도자로 태어난 것인지, 혹은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 모세가 살면서 겪은 특정한 사건들은 그를 미래의 디아스포라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모세는 부름 받았고,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우리는 대규모 이주민의 리더가 된 그의 삶에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모세의 가정 환경은 모세가 후에 어떤 지도자가 되는지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노예였던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은 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애굽 당국으로부터 아이를 숨겼다(출 2:2). 모세는 어머니와 누나에 의해 보호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모녀는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 신생아를 죽이라는 칙령 때문에 모세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 안에 넣어 그 상자를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출 2:4).

같은 날, 바로의 딸은 몇몇 수행원들과 함께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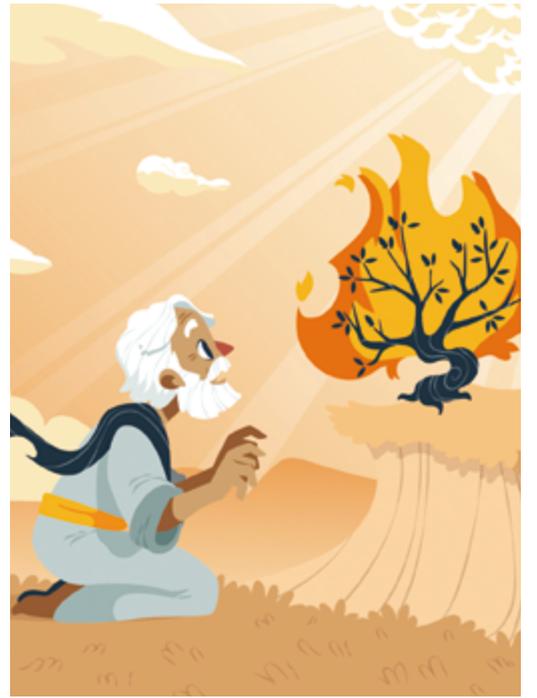
한 공주는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왔다. 상자를 열자 아이가 우는 것을 본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공주는 아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 보았다(출 2:6).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미리암은 공주에게 다가가 아이를 양육할 히브리 여인을 고용할지를 물었다. 공주는 승낙했고, 미리암은 이내 어머니를 불러왔다. 여인은 공주의 명령대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가 자라자 공주에게 데려갔다. 그렇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고 하여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출 2:10).

두 번째 통찰은 모세의 초기 생애 사건과 관련된다.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은 모세가 미래에 이주민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첫째는 그가 왕궁의 일원으로 자란 사실이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나라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학식 높은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문화와 언어에 열중했다. 모세가 마흔 살이 되었을 때 이미 왕궁에서 그의 영향력은 큰 편이었다. 모세의 역사로부터 수세기 후 스테반 집사는 설교를 통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언급한다(행 7:22). 두 번째로 모세를 이끌었던 사건은 그의 히브리 공동체 방문이었다. 그는 몇몇 애굽인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했다. 모세는 본능적으로 히브리인을 변호했지만, 결국 애굽인을 죽이고 말았다. 모세는 왕실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민족적, 종교적 유산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모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세 번째 중요한 사건

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향한 여정이었다. 모세는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하자 애굽에서 도망쳤다. 히브리인들의 가혹한 상황을 목격한 모세에게는 자신에 대해 성찰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세 번째 통찰은 모세가 지도자를 맡게 된 사명에서 드러난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주했을 때 그의 나이는 마흔 살이었다. 고향과 멀리 떨어진 땅에서 그는 일곱 딸을 둔 제사장 이드로를 알게 되고, 마침내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다. 부부 사이에 아들 게르솜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모세의 새로운 정체성과 현실, 즉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뜻이었다(출 2:22). 왕가의 일원에서 목축민으로의 변화는 도망자에게 많은 도전을 안겨주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할 때까지 이드로의 가족과 함께 40년을 버텼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의 주의를 끄셨다. 모세의 호기심은 곧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내가 돌아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출 3:3)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도망자의 대답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 3:4) 그때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노예 해방에 관한 전 인류 역사에 파동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남의 이유를 알려주셨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억압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리란 것이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10) 모세는 처음에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주장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힘을 믿은 모세는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모세는 미래의 이주민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다. 그가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만 장장 팔십 년이었다. 애굽 왕가의 일원으로서 사십 년, 양치기로서 사십 년이었다. 동족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 히브리 공동체의 현실에 모세의 눈과 마음이 열렸지만,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주민 지도자로 세워진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계획이 있었다.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이민정책

## 체류외국인 현황 및 현행 이민정책의 배경과 개선 방향



現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정길수 사무관

이민정책이란 국경 및 출입국 관리, 국적 부여, 이민자 사회통합을 포괄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이다.

2023년 4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354,083명으로 전월 2,335,596명보다 0.8%(18,487명) 증가하였으며 등록외국인은 1,237,616명,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506,195명, 단기체류외국인은 610,272명이다.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37.7%(886,405명), 베트남 10.9%(256,750명), 태국 8.8%(207,169명), 미국 7.2%(169,653명), 우즈베키스탄 3.5%(81,97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외국인은 권역별로 수도권에 715,550명(57.8%)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 230,941명(18.7%), 충청권 146,230명(11.8%), 호남권 101,583명(8.2%)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172,254명으로 전월 171,751명보다 503명 증가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은 206,746명으로 전월 214,712명보다 7,966명 감소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출입국 규제를 통한 국경 관리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의 체류 관리 △영주 및 귀화 회복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정주 및 사회통합 지원 △난민 심사 이의신청과 난민 처우지원을 위한 난민 정책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외국인 보호 등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동향 조사 △글로벌 이민자 이동과 재외 동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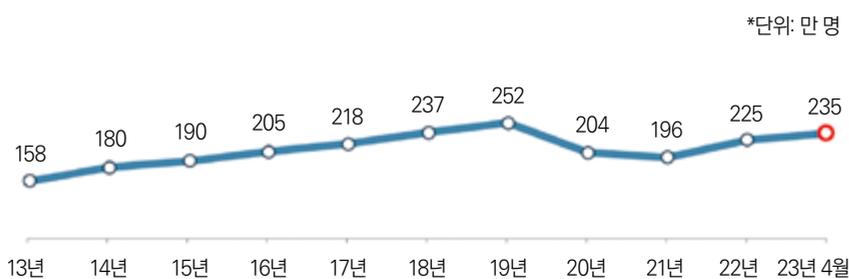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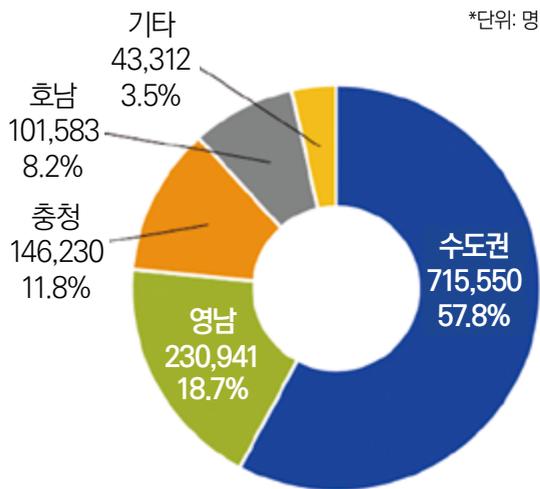
현대사회에서 이민은 보편적 현상으로,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는 내국인과 이민자의 유입을 관리하면서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정치·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은 크게 △출입국(국경) 관리 정책 △체류 관리 정책 △사회통합 정책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이민정책은 극적인 양상을 띠는데, 정부 수립 이후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이 되기까지 60년이 소요되었으나, 불과 10년 후에 200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국내 경제력 강화에 따른 이민자 유입 증가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 지향의 정책이 주를 이뤘고, 2000년 이후에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수용과 동화 지향의 정책이,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국가발전과 사회통합 정책이 주요 이민정책이 되었다.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하면서 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2021년 한국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0.2%(9만 명) 감소하였다. 2020년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2%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선정하였고, 균형발전위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역소멸 심화에 따라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활성화 이민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국경폐쇄, 이민서비스 중단 현상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국제 이주민 감소 추세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국가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임시 입국, 체류자격 갱신, 자격 변경 조치 등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를 활용하고 고학력 이주민 및 인재와 투자자 유치에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제는 이민행정 서비스와 이민자 교육 등에서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증대와 구조 변화에 맞는 정책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8,930만 명으로 역대 최다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제3국의 난민 수용에 한계가 드러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적 정책 환경 변화와 국제사회 의무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난민 수용 방식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재호

###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한국은 이민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에 열린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출하였다. 2022년 국제 매력도 지수(GAI)가 전 세계 8위를 등극하고, K-콘텐츠 확산으로 젊은 세대의 한국 이민 선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높은 국가 위상과 이민선호도에 부합하는 취업, 유학생 이민 정책이 있어야 한다. 캐나다, 미국 등 기존 이민 국가와 달리 한국과 유사한 일본, 대만 등에서는 이민정책 총괄기관을 확대개편하여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기구를 설립하고 현안에 체계적,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외국인재 유치경쟁 등 국제적 추세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민관리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국민통합위는 부처별 분절된 서비스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형 이민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이주민 통합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위 글은 정부 공식 견해가 아닌 사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표. 이민행정 담당 부처〉

| 부처    | 법무부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국무총리실   |
|-------|---|--|---|---|
| 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 소속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국무총리  |
| 근거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대통령훈령)                               |
| 목적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심의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 심의 조정, 범정부 차원의 의견 수렴 및 조율        |
| 내용    |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br>-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br>- 다문화가족과 관련 조사 및 연구, 정책분석 |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br>-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 -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수립<br>-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유대강화 |
| 구성연도  | 2007  | 2009   | 2003                                      | 1996  |

www.diasporanews.kr

##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 BAM(Business as Mission)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 4장의 '디아스포라 선교의 전략적 방향성' 내용을 요약하였다.

BAM의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존슨(Johnson, 2009)에 의하면 BAM은 "총체적 선교의 도구로서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비즈니스"이다. 발제자인 요아오 모르도모(João Mordomo)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를 통해 전도 대상자들을 영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변혁시키는 진정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두 정의를 토대로 비즈니스 선교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BAM(단일 문화-전도된 종족): 25% 이상 복음화가 이루어진 동일/단일 문화 속에서 개인이나 그룹이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②BAM(타문화-전도된 종족): 타문화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③BAM(단일 문화-미전도 종족): 성경적이고 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미전도 종족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④BAM(타문화-미전도 종족): 가장 전략적인 방식이지만 비즈니스의 도전은 위의 4가지 중에 가장 높다고 하겠다.

발제자 모르도모는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BA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첫째로, BAM의 우선순위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접할 기회가 없는 종족에게 있다. 둘째, 국제 이주 인구의 반 이상이 북반구에 살고 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이주자들이 비교적 열려 있는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는 곧 이주 인구의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며,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기도 하다. 셋째, 교회는 전문 선교사와 일반 성도의 구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훈련하여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내보내고 세상을 복음화해야 한다.

넷째, BAM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이주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것 그 이상의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 현실적인 소망 등을 주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력을 향상시켜 공동체 전체의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디아스포라와 함께 가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국가 간에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여 정치적·재정적으로 통로가 되기도 한다. BAM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 여섯째, 마치 아브라함이 부단한 이동과 경제 활동 끝에 열국의 복이 된 것처럼, BAM과 디아스포라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중요한 틀로써 다시 제시되어야 하는 모델이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글 김성훈(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Empowerment**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

H www.nasom.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반포동)

T 02-2023-5600

H www.namseoul.org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

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

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

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

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

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

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

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

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오름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H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5

T 02-6181-6154

H www.yfgcinternational.com

영어예배 주일 오전 9:00 / 11:00

영어청소년 주일 오전 11:00

영어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2:4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3:00

은평성결교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길 10

T 02-383-0071

H www.epehc.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

H www.isfkorea.org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수도권역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H www.sja.or.kr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0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00

몽골예배 주일 오후 1:30

일본예배 주일 오후 1:0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

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

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량로 27(WM센터)

T 031-400-1111

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

H www.kvim.hompee.com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

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

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일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

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

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로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이주민 예배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순복음열방선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

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385-4680

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

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

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 안내 접수

문의  
1215grace@naver.com

## 경상권역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  
**H**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후 3:3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침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j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70-8648-0668  
**H** ulinch0229.w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영어연합예배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0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교회/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2호  
도서관: 경북 경주시 금성로 374 301호  
**T** 054-772-0691  
**H**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권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GFC국제유학생센터(부산대)**  
금정구 금강로 279번길 78 금양원룸 지하  
**T** 010-7726-1310  
**H**  
영어예배 토요일 오후 7:00

## 전라권역

**갯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전라권(광주),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강원이나 제주 등 바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 드립니다.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디아스포라신문

발행인 문창선 목사 · 편집인 문예은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구독 신청 QR



선교한국은 기독교청년들이 영적 각성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학생선교단체, 파송선교단체,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선교운동입니다.

2023선교한국대회 주제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20:21)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이 복음의 사건이라면 성자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선교의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교한국대회를 통해서 청년들은 복음의 생명력과 선교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 2023 제18회 선교한국대회

## 2023. 8. 7 - 11

한동대학교, 기쁨의교회

### 주강사



**문대원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아침성경강해



**윤태호 목사**  
JDM 대표  
\*저녁집회(월)



**화종부 목사**  
남서울교회 담임목사  
\*저녁집회(화)



**박현주 선교사**  
WEC선교회 부대표  
\*저녁집회(수)



**김요한 목사**  
전 GMP 대표  
현 둘로스네트워크 대표  
\*저녁집회(목)



**한철호 선교사**  
미션파트너스 대표  
\*파송예배(금)



**김장생 선교사**  
CCC 해외선교팀장/커넥션스쿨

**이혜란 선교사**  
CCC 순상담센터장/커넥션스쿨  
\*Global Mission Trends(월)

### 등록안내

- 1차 등록 3월 13일 ~ 5월 30일 학생 11만원, 일반 13만원
- 2차 등록 6월 1일 ~ 7월 4일 학생 12만원, 일반 14만원
- 3차 등록 7월 5일 ~ 8월 1일 학생 13만원, 일반 15만원

- 등록은 선교한국 홈페이지(www.missionkorea.org)에서 가능
- 기본 숙소는 한동대 기숙사 4인실(60,000원 별도)이며, 원치 않을 시 개별적 숙소 예약 요망



### 주요 프로그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녁집회**  
선교로 말씀을 파헤치는 **아침 성경강해**  
세계선교 흐름을 꿰뚫는 **GMT(Global Mission Trends)**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으로 가는 **파송예배**  
타문화 선교사들의 **아름다운평글소식**  
선교적 관점을 열어주는 **미셔널 세바시**  
다양한 퍼포먼스의 **버스킹**  
궁금한 건 못 참치 **미셔널 Q&A**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강의**  
다양한 선교단체들과 함께하는 **선교단체 박람회**  
선교 현장을 체험해 보는 **다이나믹 배움터**  
국내 최고의 선교도서를 한 눈에! **선교도서 박람회**  
다양한 동역자들과 만나는 **소그룹**  
나의 선교 여정을 도와줄 **미셔널 멘토링**  
다양한 국가에서 선교운동을 섬기는 **해외참가자**  
단체 참석자를 위한 **단체 개별 시간**까지!

예배팀

## 아이자야씨스티원 ISAIAH by one



### 선교한국 회원단체

